

◆ ECGD, 나이지리아의 LNG 프로젝트에 1억 3,300만 파운드 보증 지원

영국의 ECGD는 최근 나이지리아의 Rivers州 Bonny Island에서 진행중인 LNG 플랜트 확장 사업에 총 1억 3,300만 파운드 규모의 보증을 제공기로 결정하였다. 대주은행은 BNP Paribas, 시공업체는 MW Kellogg社이다.

1999년 5월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들어선 오바산조(Olusegun Obasanjo) 대통령의 민간정부가 경제개혁 추진과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나이지리아의 경상수지 및 외환보유고 상황이 호전된 가운데, 최근 지나치게 석유 의존적인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천연가스 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시설투자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이지리아는 확인된 가스 매장량 약 124조 ft<sup>3</sup>(입방피트)의 세계 9위의 천연가스 매장국으로, 1999년 Bonny Island에 38억 달러를 투자해 설립한 액화천연가스

생산공장인 Nigeria LNG Limited (NLNG)<sup>2)</sup>가 2000년 9월부터 정식 가동을 개시하면서 본격적인 천연가스 수출 기반을 갖춘 바 있다.

2002년 말까지 총 3개의 LNG 플랜트 건설이 완료되었으며, 금번 ECGD의 지원 결정은 200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4·5차 플랜트 건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총 12억 4,000만 파운드로 예상되는 플랜트 확장 사업 소요경비 중 금번 지원분은 6억 3,000만 파운드로, 이 가운데 3억 8,000만 파운드가 ECGD, 미 수은, 이탈리아 SACE, 네덜란드 Gerling NCM 등 4개 수출신용기관에 의해 지원되었다. 금번 LNG 플랜트 확장이 완료되면 생산되는 LNG는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럽의 주요 국가로 수출될 전망이다.

【김기상】

2) 나이지리아는 원유 생산과정에서 방출·소각되는 천연가스를 액화시켜 주요 수출품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Niger Delta 지역의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1995년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인 NNPC(49%), Shell(25.6%), TotalFinaElf(15%), Agip(10.4%) 등이 합작 투자하여 동국 유일의 액화천연가스 공장인 Nigeria LNG Ltd.(NLNG)를 설립하였음. 최근 나이지리아 정부는 자국에서 활동중인 석유메이저들과 2004년까지 유전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 소각을 전면 금지시킨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이에 따라 석유메이저들이 액화천연가스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를 늘릴 전망이다.